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19년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19a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월 1일 (화) 제 171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신년 칼럼



미래로 가는 길

김성국 목사 |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담임

새해의 여명(黎明)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새해를 맞는 모든 독자들의 가정과 사역위에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해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라는 미래는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기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무엇보다 지난날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미래로 건기에 유익한 자산(資産)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위한 유익한 과거의 자산 중 가슴에 새기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식과 목적의식입니다.

우리의 선진(先進)들에게는 함께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왜 가야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할지도 분명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도 바라보았고, 함께 "땅 끝"도 향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 보세"의 노래도 불렀고, 함께 "민주화의 길"도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않고, 이 역사의 강이 어디로 흐를지 살피지 않으며, 그저 눈앞의 이익을 좇아 혼자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주류(主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옛적 그 선한 길이란 이름을 가진 과거를 상실한 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역사의 줄기를 붙잡고 그 뿌리를 곱씹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넘어 크게 융기(隆起)하는 새날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과거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선명한 미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과거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나라의 완성에 있으십니다. 우리는 충성(忠誠)과 혁신(革新)으로 그 나라의 완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마존 제 2분사가 뉴욕의 롱아일랜드시티에 들어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백 개의 후보도시들이 그 유치(誘致)를 위해 각축(角逐)을 벌이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아마존이 유치되면 엄청난 경제적 붐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의 이름을 아마존 쿠오모로 바꾸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자기의 성(姓)은 그대로 두고 이름은 바꿀 수 있다는 발상(發想)은 과거와 미래, 충성과 혁신을 아우르는 절묘한 발상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아마존 쿠오모"라는 과거와 미래를 담는 말로 자기가 속한 도시를 위해 충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그 유치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혁신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미래로 가는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문화적 폭풍속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선포

월드, 존 S. 디커슨이 제시하는 6가지 문화적 변화와 크리스천의 응전원리 제시

기독교 문화란 기독교 복음정신의 표현양식을 말한다. 폴 틸리히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표현양식이다"라고 했다. 기독교도 예외일 수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두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이뤄져 있다. 하나는 초문화적인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을 역사적으로 표현해내는 문화적인 형식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표현양식 없이는 복음의 선포도 있을 수 없다.

개혁주의 즉 칼빈은 문화가 기독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문화 기독교적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에 대한 변혁사상을 말한다. 즉 문화가 그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규정했다. 그리고 이 지고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침투돼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선택받은 자의 전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이 종교의 주인일 뿐 아니라, 보편역사의 창조자요 구속주가 되심도 선포한다.

저널리스트이자 목회자로, 특히 탈 진리, 포스트-크리스천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존 S. 디커슨(John S. Dickerson)은 향후 미국 문화를 재형성시킬 수 있는 6가지 흐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Facing cultural storms: Six trends that are rapidly reshaping the lives of American Christians). 그래서 이처럼 급변하는 문화시대 속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는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1. 미국과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쇠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사라지는 비율이 훨씬 높다. 퓨리서치는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를 떠나, 즉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박차고 불가지론이나 무종교에 돌아서고 있다고 밝힌다. 무려 %정도가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신앙을 전면적으로 바꿔치기하고 있다(Among Christians, deaths exceeded births in 24 of 42 countries, 2010-2015)

이러한 크리스천 인구감소와 함께 사고방식 즉 세계관이 기독교를 비껴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미 진단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의 소위 "포스트-크리스천" 시기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천들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만 문화의 중심은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By 2060, more than 4-in-10 Christians expected to live in sub-Saharan Africa).

(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새 발행인에 김성국 목사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새 발행인으로 김성국 목사가 2019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 김성국 목사는 전임 장영춘 목사에 이어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취임하면서 "세속화 물결 속에서 바른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문서 선교지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새 발행인 김성국 목사는 종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든 콘웰에서 Th. M과 D. Min 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퀸즈장로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3면
기독교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김재열 목사



4-5면
신년메시지



6-11면
신년특집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케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증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별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s.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일,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1/2(수) 5:2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3(목) 5:20am
강사: 김용훈 목사
(워싱턴영림문장교회담임)



1/4(금) 5:20am
강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1/5(토) 6:00am
강사: 박수웅 장로
우리사랑할까요? 저자

일시: 2019. 1. 2(수)~5(토)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2019
HAPPY NEW YEAR

신년축복성회

일시: 2019. 1. 24(목)~27(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강사: 장학일 목사(예수마음교회 담임)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일성령집회 8:00pm

장학일 목사

2019년 새해 축시

새해메뉴



강태광 목사 (미주문인협회 회장)

동장군이
심술부리는
한 겨울에도

겨울 찬바람을 이기는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절망의 한 숨소리
가득한 곳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사망의 아우성
요란한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

새해엔
사랑의 가슴으로
희망의 노래 부르며
생명의 춤을 추자

새 아침 태양이 솟을 때
사랑의 가슴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생명의 춤을 추자

새해에도
아픈 봄날도 오고
무더운 여름도 오고
쓸쓸한 가을도 오고
냉혹한 겨울이 오겠지만

새해에는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목놓아 희망을 노래하며
더 벅찬 감격으로
생명의 춤을 추자

(1면에서 계속)

2. 미국 안에서 불고 있는 사회주의 바람

지난 2016년 대권 예비 경선에서 상당수의 젊은 미국인들이 사회주의 후보인 버니 샌더스에게 거의 몰표를 던졌다. 힐러리나 트럼프 두 후보가 받은 지지율보다 더 높았을 정도로,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유토피아는 엄청났다(WP, More young people voted for Bernie Sanders than Trump and Clinton combined-by a lot). 한마디로, 미국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약진이 기대될 정도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엄 미국인들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거의 기대가 크다(A majority of millennials now reject capitalism, poll shows). 미국 역사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이처럼 높았던 것은 처음이며, 점점 더 젊은 세대에게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빠르면 2020년 선거,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밀레니엄 세대가 많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다(Millennials projected to overtake Baby Boomers as America's largest generation). 아직까지는 부모와 나이 든 미국인들이 문화적 방파제로 사회적 변화라는 조류를 막고 있지만 이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회주의는 더욱 더 패속하게 미국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단지 현재 젊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치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물결들이 계속 들이닥치게 되면 미국을 규정했던 전통적 가치들의 미래가 의심스럽게 된다.

3. 미국의 이념 전쟁

밀레니엄이나 젊은 미국인들은 현실을 부모인 부머나 할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본다(The End of Absolutes: America's New Moral Code).

구분을 하자면, "진리에 근거한(truth-based)" 세계관과 "탈진리(post-truth)" 세계관의 극명한 대립이 예상된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분화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의 양립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탈 진리' 세계관은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존한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는 드러난 사실이나 기존의 성문화된 기준보다는 동료들이 느끼는 연대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탈 진리' 세계관/이데올로기는 이미 상당한 미국인들이 포용하고 있고, 그 중 대다수는 젊은 미국인들이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은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 미국의 도덕, 선거, 문화 등이 재형성될 것이다(the Oxford Dictionaries Word of the Year 2016 is post-truth - an adjective defined as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

4. 미국 인구에서 백인의 감소

유럽에서의 백인 인구의 감소는 대영제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순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 됐다(White Deaths Exceed Births in a Majority of U.S. States). 이는 이민자들의 유입만으로는 볼 수 없다. 바로 젊은 미국인들-주로 종교를 갖지 않은, 인신을 회피하며 그리고

되도록 자녀를 그것도 하나만 가지려는-의 출산율 감소가 근본적 원인이다.

유럽에서 자국내 출산율 감소의 여파는 곧바로 무슬림 국가들로부터 이민 요구로 이어졌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은 공장에서도 노년으로 접어들어 백인들을 보살피며 점점 더 경제 운영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서구권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불행하게도 낙태의 합법화와 기독교로부터 떠난 문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이슬람의 급부상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슬람이야말로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관이다. 이미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가치이자 이념이 돼버렸다. 한마디로, 그 성장세는 공격적이다. 올해만 해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러시아 전체 가정 숫자보다 높다. 이렇게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향후 30년 동안 73%가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지구촌 사람들 중 1/3이 무슬림이 될 것이다(Why Muslims are the world's fastest-growing religious group).

이미 인구 구성에서 앞서가고 있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가치이자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무슬림 과다국인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그 현상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

(11면으로 계속)



시론

STOP & CHECK



은희곤 목사 (참사학교)

살다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반드시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 1931년)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에서 '엔지니어링 및 손실 통제'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산업재해 사례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통계적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와 중상자'가 1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법칙을 '1 : 29 : 300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 : 29 : 300'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사고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연히 또는 어느 한순간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그 사고와 같은 이유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라는 300건 정도의 잠재적 부상자가 있었고, 실제로 그 사고와 같은 이유로 "이만 하길 다행이지"라는 29건의 경미한 사고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을 정리하자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1)다수의 징후들(300번의 잠재적 위험, 29번의 경미한 사고)을 통하여 이미 충분한 경고가 있었고 2)이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라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므로 3)다수의 징후 경고들에 예민해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사고는 항상 작은 사고들을 경시하고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인터넷에서 내용참조).

우리들의 실생활에 시사해주는 바가 큼니다. 하나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천국)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이어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뉘다"는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달란트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미련하고 악한 종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말 그대로 양과 염소로, 주인에 의해 반드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가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즉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들어가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인 열처녀의 비유를 봅시다. 전하고 싶은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준비"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신앙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등잔에 불이 꺼질 수도 있는 상황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혹 다른 말로 하자면 "위기관리능력"입니다.

어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매해마다 1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시는 꽤 잘되는 중소기업체 사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같이 하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매해마다 직원들을 무슨 기준으로 신규 채용하십니까?", 이때 돌아온 대답이, "목사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평소시에는 웬만큼 스펙들은 다 갖춰기에 능력이 나타나봤자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가 닥칠 때 능력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항상 위기가 닥칠 때를 위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신앙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 즉 미리미리 평소 애를 기울여 돌볼 줄 아는 위기 상황들을 예상해보며 그 솔루션을 씌우며 고민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돈, 내 명예와 권력과 힘에 고집과 아집이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닦이 우는 3번의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영적 민감함,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인생의 끝과 영생의 시작을 바라보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예배 가운데 전하여지는 가벼운 찰림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할 때 결국 회조리로, 회조리로 안 되면 몽둥이로, 몽둥이로 안 되면 결국 큰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징계입니다. 작은 찰림에도, 따끔할 정도의 회조리에도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습니다. 뭐 새해라고 작년과 그리 크게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다만 새해를 맞는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아마 새해는 나에게 더 나은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 깨어 가던 길 잠시 멈추어 서서(매우 자주 "STOP", 점검) 스스로를 돌아보며(매우 자주 "CHECK", 회개) 항상 옷매무새 가다듬고 간다면, 분명 소망과 기대와 꿈으로 가득찬 한해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감사 예배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9년 1월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가든 스위트 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3344
- 문의 : 준비위원장 박세현 목사(323)404-3147 총무 강태광 목사(323)578-7933

- 참가 예약은 1월 6일까지 받습니다.
- 참가 신청 접수: 부회장 이상권 (213)435-2266, 조미나 (213)858-9147 이정현 (714)390-9197



샘 신 목사 이임회장



김관진 목사 취임회장

※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315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20 Tel 213-503-3355 Fax 213-385-9191

신년설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미지의 시간, 미지의 땅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속으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도 홀로 남았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민족을 이끌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대한 사명을 받았습니...

움과 외로움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잠깐이지만 허황한 생각이 온 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순간에 뱀 바다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못한 죄인, 잠시 신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빠졌나이다' 눈에서 감정인지...

야 그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 시대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삼고 네 하나님이라!'(창 17:8)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창26:24).

18년 동안 새 예배당 건축을 기다린 끝에 모든 건축 공사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입주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지경에서 아주 절망스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건물은 거의 준공하고 모든 재정 결산을 시공회사와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주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예상 밖의 추가공사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7만 불도 아닌 70여만 불의 거액이...

잡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43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뿔 무늬 셔츠에 줄바지를 입고 장발을 내려뜨리며 기도해 몰두하고 있는 27살의 나의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동시에 그 때 여의도 광장에서 내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생하게 내 가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마!'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맘에 강력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3년 동안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여호수아 1장 1-9절

김재열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뉴욕센트럴교회 담임



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꿇고 나가야 합니다. 키가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지만 속으로 무척이나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성도 깨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의 감동을 받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평생을 승리의 삶으로 전진하십시오. 저는 새해만 되면 30년 전 이민 목회에 첫 걸음을 시작하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1988년도에 토론토 이민교회에 청함을 받고 도착한 날이 12월 31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1월 1일 주일이었고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목회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년 교우 21명이 전부였습니다. 교회 상황은 10년 동안에 목사님이 6분이 바뀌었습니다. 자체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집회는 오직 주일예배 한 번 뿐이었습니다. 주중집회도 없었고, 주일학교도, 새벽기도회도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기가 죽었습니다.



말씀을 강력하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9절). 신기하고 신기한 주님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폭설의 뱀 안에서 1인 부흥회에서 만나주셨던 주님! 이민목회 3년 만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감정과 내 상황적인 기분이 아닌 주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당당하게 세우셨던 그 신의 감동이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축원합니다.

-두려워 회피하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2) -이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뵈이니라'(사41:10).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기가 죽어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5절). 거대한 전쟁을 앞에 놓고 불안하고 기가 죽은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깨뜨립니다.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존 건물은 이제 곧 비워줘야 합니다. 새 건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암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 데갈데도 없이 임당은커녕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회원들과 건축위원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숙제인 줄 믿고 기도하자고 권고는 했지만 정작 담임목사인 나는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속이 녹아내리는 듯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두문불출하면서 기도만 염려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우 한 분이 목사님을 격려한다고 유튜브 찬양 한 곡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 않고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찬양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뒤를 이어 유튜브의 다른 찬양과 영상이 났습니다. 첫 배경 사진에 눈에 익은 김준근 목사님 성령폭발대회 장면들과 함께 찬양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눈에 익은 추억의 옛 사진들이 내 눈과 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나타난 충격적인 한 장의 사진을 본 나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 꿇고 두군가와 손을...

두려움과 염려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토론토 이민목회 시작하면서 눈덩이 속에 파묻혀 외로웠을 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18년 동안 건축을 기다리면서 절망의 순간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엄청난 난제가 1센트도 지불하지 않고 깨끗하게 은혜롭게 청산되었습니다. 35개 이상의 건축 하청회사들을 일일이 불러서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이제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광야 길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기죽지 마시다. 왜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의 감동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새로운 한 해의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jkim47@gmail.com

둘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19학년도 겨울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화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겨울학기 학생모집 합니다.

- 모집과정 1. 학사 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 (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 (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19 학년도 겨울학기 1. 원서 마감일: 2019년 1월 26일 2. 개강수련회: 2019년 1월 29일, 30일 오후 7시 3. 장소: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 (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 2019학년도 겨울학기 개설 과목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1. NT-713 로마서연구 (Study on Romans) 담당교수: 최갑종박사(백석대 전총장, 신약학 Ph. D) 일시: 2019년 1월 14일 (월)-17일 (목) 오전 9시 - 오후 5시
2. CE-711 기독교 사회윤리 (Christian Social Ethics) 담당교수: 민종기박사 (총현선교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학 Ph. D) 일시: 2019년 1월 21일 (월)-24일 (목) 오전 9시-오후 5시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otdjkim@sbcglobal.net

- 박사 과정 안내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California BPPE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목회학 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단체 지도자
졸업학점: 36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학비: 학점 당 150불
(2) 신학 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소유자
전공 분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임 (입학시)
졸업학점: 48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학비: 학점 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4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신년메시지

천국을 현실화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아틀란타교협 회장 송상철 목사(아틀란타 새한장로교회)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엔 죽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살기 말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면서 살기 바란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셨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영광과 기쁨으로 현실화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영광과 희락이라고 말씀한다.

의로 승리하기 바란다. 성경은 죄와 마귀의 종인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희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생명으로 다시 살면 모든 게 신세계다.

희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생명으로 다시 살면 모든 게 신세계다.

희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생명으로 다시 살면 모든 게 신세계다.

jsongsaeahan@hotmail.com

3.1운동 100주년...조국 복음통일에 큰 관심

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소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독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2019년도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추구하기위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던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 난지 꼭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가 됩니다.

아울러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새해와 더불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한인들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게 된 것을 성시화의 온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음이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 회복하길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목사



기해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의 의미가 담겨진 2019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빛을 고대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실천하는 혈관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혈관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올 한해는 복음이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엔 꿈쟁이가 됩시다!

기감 미주자치연회감동 은희곤 목사(뉴욕참사랑교회)



기해년(2019년) 새해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은총과 힘주심이 가득한 한해, 꿈들이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이리저리 둘러봐도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와 꾸지 않는 자는, 씨앗을 뿌리는 자와 뿌리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성경적 교회로의 회귀'로 길잡고 떠나는 순례의 여정에 대한 꿈을 씁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내가 바로 그 꿈을 꾸는 그 한사람 '꿈쟁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된 삶 실현되는 해

뉴욕교협 회장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주님의 성탄과 함께, 새해에는 더욱 알찬 승리의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긴장하여 각성하는 기도가 필요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실천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가 내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투옥시키며 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cheongssoonwon@yahoo.com

바른 진리 보급하는 살아있는 신문으로

필라교협 회장 김성철 목사(예승장로교회)



2018년 무술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이 옵니다. 이 두해의 공통점은 황금색깔입니다.

2016년 말부터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입니다.

2016년 말부터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입니다.

yeseungkim@gmail.com

꿈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뉴저지교협 회장 홍인석 목사(하늘문교회)



빠른 세월 속에 묻혀 살아가다 보면, 해가 바뀌는지도 모르게 새해의 은혜를 감동 없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이민 교회가 나의 이민 생활이 다소 어렵고 지치게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풍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시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시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시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시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pf-hong@msn.com

새로운 내일 준비하는 동역자들 되길

빅토밸리목사회 회장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자 여러분들께 2019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빅토밸리 한인목사회에서는 봄 여름 가을 세 차례의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친구와 성경 배경시대 유물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후세에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목사회 단위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회 주최 연합기도회들을 통해 이 지역의 미 주류 교회들과도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회 주최 연합기도회들을 통해 이 지역의 미 주류 교회들과도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 일어나 빛 발하는 새해 되길

PCUSA한인총회 총회장 원영호 목사(LA 새장로교회)



2019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2018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염두도 못 내었던 일들이 일어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19년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19년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신년메시지

주님 손에 붙들려 달려가는 한 해 되길

KAPC개혁장신대원 총장 이정현 목사(빛과소금교회)



예수 2019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크리스천신문 애독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나라 확장위해 전력투구

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목사



2019년 대망의 새해가 찬연하게 동터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기와 함께 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우리의 바램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독일 기독교 신비사가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á Kempis)의 말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2019년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해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새로운 시작을 여는 2019년의 시작을 앞두고 희망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짐이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까닭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빛 되신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 되길

KPCA 총회장 원종권 목사(아르헨티나 소망교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정치적 혼란, 사회적 재난, 폭력, 동성애 등 다양한 문제로 힘겨웠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는 여전히 문제와 혼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특히 디아스포라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님, 선교사님들에게 큰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거룩성 지키는 뜻 정하는 해로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회장 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례교회)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결단(New Year's resolution)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물 중에 다니엘은 그의 청소년시절에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바벨론시대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바벨론시대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바벨론시대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바벨론시대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바벨론시대처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해답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신년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빠 달려왔던 2018년,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 더 생각하고 걸음의 템포를 늦추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해

세계한인기독교인론협회 회장 임승래 장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봅시다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목사



유대인들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바울은 회심하기 전 교회를 핍박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움을 입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도착순)

youngyic@hotmail.com

“시대를 분별하라” -목회

2001년부터 '교수신문'에서는 연말 기획으로 전국의 대학교수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왔다. 올해의 사자성어란 그 해를 상징하는 말이다. 따라서 사자성어만 보면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이 정해졌다. 이는 사악함을 부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뜻이다. 전에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 선정되었었는데 17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단어가 정해졌다. 파사현정이라는 말처럼 세상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일이 그렇듯이 지난 일 년 동안 사악함은 더 들끓고 정의는 존재감을 잃어 파정현사(破正顯邪)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다.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히스기야 시대의 정황은 더욱 어려웠다. 절제정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일반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1. 파정현사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에 등극하여 29년 동안 통치했던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와 나의 힘'이라는 뜻이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은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다. 즉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길로 행한 데 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배역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이방인처럼 자녀를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미신에 깊이 골몰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가 계속 곤경에 처하게 만드셨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에게 재산을 다 끌어 모아서 조공을 바쳤는데 도리어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한데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죄를 범하였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을 폐쇄하는가 하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자기 나라의 이런 망가져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

또한 히스기야의 즉위 7년 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열었던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였던 인물이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벨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하면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관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샀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명대로 산 왕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만큼 왕궁에서는 피비린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앗수르의 식민지가 되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상실해 버렸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가 너무나 혹독하였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유다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북쪽에 있던 앗수르의 세력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역사 속에서 열강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며 왕의 대로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 군침을 흘렸으며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앗수르가 익히 알고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결국 정복하였다.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작은 남유다를 정복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버지가 성전에 대해 지은 죄와 역사 속에서 유다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레위기 24:10-11)에 규정된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린다(29:21).

특이한 것은 그가 제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다윗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악기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을 들고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윗의 악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29:25-27). 역대기 기자는 왜 여기서 다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였다(30:10,11).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은 교회이며,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예배가 아닐까? 예배가 예배다우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였듯이 오늘날 교회는 예배와 찬양의

키지 못하였다.

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30:19,20).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무교절을 칠 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시 칠일을 지켰다. 그들의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칠 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신약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는 모양과 형식을 중시한데 반해 신약에는 내용과 중심을 중요시했다. 여기서 구약적 관례대로라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도 명년으로 미뤄야 했고 정결례를 고집하고 성결치 못한 사람을 유월절 행사에 참여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절기가 늦어졌지만 지켰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대단히 신약적인 사건이라 했지만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본질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출 32:32). 다니엘은 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감사하였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다. 요엘 선지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2:13)고 하였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쉼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오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보건대 마음이 비고 깨끗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야 한다(롬14:17). 술 취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엡 5:18).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갈5:16).

세상이 참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변화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변화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희망이시라는 사실이다. 파사현정, 이것은 모든 사회의 꿈이지만 파정현사가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파사현정의 현실에 맞서 싸워 파정현사의 애곡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꿈을 꾸어라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풀러 Th. M

예배와 찬양의 권능부터 회복...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 교회가 소수를 걱정하지 말고 소수라도 각성되지 않음을 탄식

이 위태로운 상황을 청년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다. 점차 세력이 강해지며 호전적인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민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즉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었었을 것이 분명하다.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들 대부분의 마음은 히스기야와 같을 수 있다. 로마서 1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형벌은 내어버려두시는 것이었다.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 삶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내버려두신다. 더할 나위 없이 타락하고 죄악이 창궐해도 내버려두신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불길하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기에 내버려두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 파사현정

역대기하 29장에서 4장에 걸쳐 히스기야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한 마디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만이 자기와 자기 민족이 살 길이라고 깨달은 듯하다(29:2). 그는 즉위한 첫해 첫째 달부터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결하게 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자기 아

릿을 특히 언급했을까? 추측이지만 히스기야가 꿈꾸었던 모델은 다윗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다윗의 시대, 즉 하나님만을 높이던 그 시대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본문에서 느껴진다. 다윗이 오벵에돔의 집에서 인양개를 옮겨올 때 속살이 보일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마친 히스기야는 히브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은 솔로몬 이후 200여 년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러니 다른 명절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 만무하다. 히스기야는 팔레스타인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 단계인 히브리 민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30:7).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심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권능부터 회복해야 한다.

강단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찬양이 권능으로 가득하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소수의 무리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역사였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나타났다. 교회는 소수임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소수라도 각성되어 있지 않음을 탄식해야 할 것이다.

3. 본질회복

히스기야가 최초로 유월절을 지키는 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 절기였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다 보니 첫째 달은 이미 지나고 둘째 달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 때 이미 유월절 절기가 지나갔으니 명년으로 미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비록 둘째 달이었지만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나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례를 거쳐야 한다는 데 있었다. 정결례란 세상의 오염을 씻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진 밖에서 7일간을 머물러야 했고, 정결욕조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했다. 그리고는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정결례를 지켰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자들 중 많은 무리가 정결례를 지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대를 분별하라” -서고

들어가는 말

북미주 한인교회 교회사를 통해서 보는 선교동원의 역사를 관찰하고 1903년도에 미국 하와이섬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생긴 이후로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관한 시대적 특징을 고찰하며 미래선교동원 전략을 제안하기로 한다.

지난 과거의 미주한인교회들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에 어떠한 방향으로 참여하도록 선교동원을 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북미주 한인교회 시작의 계기를 만든 조선에 최초로 입국한 의사 알렌선교사

하나님께서서는 어려웠던 조선말의 시대에 한인들을 미국 하와이섬으로 이민을 보내신다. 이 과정은 당시에 조선의 상황에서는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나는 과정과 흡사하다. 또한 하와이의 이민은 사도행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떠나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러한 이민의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치밀하심을 선교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한국이 아직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남아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교회의 한국선교의 문을 여신다. 북미주 한인교회는 북미주에서 파송된 알렌선교사의 의뢰가 시작이 되었다. 알렌 선교사의 연결로 인하여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보내지게 된다. 하와이는 1898년도에 미국본토에 병합이 된다. 당시 이미 사탕수수 농장이 5개가 있었던 하와이는 1897년 6월 16일 매킨리 미국 대통령과 하와이 공화국이 합병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 조약을 미국 의회가 1898년 7월 7일에 비준하였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가 1900년 4월 30일이었다(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

하와이의 미국 병합으로 하와이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일로 급히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일로 인하여 조선인들의 노동이민의 계기가 열린다. 선교동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의 역사와 북미주 한인교회의 시초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면 하나님의 선교동원전략은 하와이의 1898년도의

미국함병 14년 전에 조선에 알렌을 보내시고 14년간 성공적으로 선교의 기반을 만들게 하시고 조선인들이 하와이에 오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세계화를 미리 준비하심을 알 수 있다. 선교의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일반역사를 통해서도 선교를 확장하시는데 당시 감신정변으로 민영익과 알렌의사를 만나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렌은 1890년부터 주한 미국공사 되었다. 1901년도에 휴가차

을 설립하고 민영환을 수민원 총재에 임명한다. 이때부터 서울, 인천, 부산, 원산 등지에 개발회사가 설립되고 이민자를 모집했다.

당시 인천 내리교회의 조지 허버튼 목사(한국이름 조원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존스 목사는 내리교회의 한국인 신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친지나 이웃사람에게 하와이 이민을 설명했으며 서울 등지를 직접 다니면서 교인들의 응모를 권유하기도 했다(www.urimcrrc.com). 첫 출발한 이민자들이 미국상선 켈릭호로

첫 이민자들 중 50여명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다. 첫 한인교회에 선교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이민자 중에 인천내리감리교회에서 이민자들의 신앙지도를 목적으로 파송한 홍승하 전도사가 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사탕수수 노동이민자 그룹에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내리교회에서 홍승하 전도사를 함께 보냈다는 것은 북미주한인교회에 시작이 선교사가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교동원의 한 부분

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본토에 유학한 한인 학생들이 증가하며 교회들이 세워져갔다.

2018년도 현재 북미주한인교회 현황과 선교동원의 연관성

북미주한인교회의 현황은 2018년도 초 미주크리스찬투데이 신문의 집계로 따르면 2018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미주내 한인교회는 4,454개로 1년 전에 비해 33개가 증가한 수로 집계된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1일 미연

회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서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인교회들이 저력을 가지게 되도록 도와주는 결과로 되었다. 이것이 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를 감당할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로 한인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내보내시고 그들에게 선교동원력을 키우신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선교경험은 곧 선교동원력을 전환이 되었으며 그 선교 동원력이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선교로 깨우며 세계선교에 참여하도록 기초를 만들었다.

선교의 성장은 선교동원력과 직결됨을 살펴볼 수 있다. 선교동원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자력이 생기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인프라가 생기며 네트워크 형성된 후 외부의 선교동원력을 가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선교동원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기도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인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선교동원력이 커지고 있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전략제안

첫째, 소중한 교회운동을 제안한다.

소중함교회운동의 뜻은 소중함교회와 중형교회의 선교운동을 줄인 말이다. 미주크리스찬투데이의 조사를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2018.5.10)에 의하면 한인교회들의 76%는 100명 이하 성도이고 이 중에 47.1%는 50명 이하교회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형 중형교회들은 재정이나 인력동원, 파송에 단독으로 선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소그룹으로 5-10개의 교회들이 선교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선교사를 공출하는 방향으로 파송하여 함께 선교사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은퇴한 전문인들을 동원하기 위한 황금기선교사 운동을 제안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한인교회들의 성도구성비가 점차로 은퇴한 연령의 성도수가 교회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인교회들의 선교사진 중 하나가 전문직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은퇴연령의 성도들이다.

미국에서 은퇴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이 나온다.

(11면으로 계속)

북미주한인교회 역사를 통해보는 선교동원 미래전략

김정한 선교사

D.Miss, SON Ministries

GMAN/KWMO 대표



의사 알렌부터 하와이 이민, 북미주한인교회 선교 시작 다민족, 다문화권, 이민커뮤니티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1903년 1월 3일에 호놀룰루 항구에 86명이 상륙을 했는데 남자가 48명, 여자가 15명, 어린이가 22명이었다. 그들은 와일루아의 모클레아 농장으로 갔다. 2차 이민자들 63명은 캅틱호로 1903년 3월 3일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오아후섬 카후크 농장으로 갔다.

1903년도에 이민은 16차로 모두 1,133명, 1904년도에는 33회에 3,434명, 1905년도에는 6월까지 16회에 2,659명이 도착했다. 총 이민자수는 남자가 5,048명, 여자가 637명, 어린이가 541명이었다. 당시 이민자들의 구성을 보면 65% 정도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교인들, 공부목적으로 한 학생들, 향리의 선비들, 광부와 군인들 그리고 농촌이름들 여부와 건달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각 섬에 있는 40여개 농장으로 분산되었다. 한곳에 30여명에서 많게는 300여명까지 집단거주를 하며 농동을 하였다. 새벽 5시부터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이 남자 67센트, 여자 50센트였다

만 3년간만 조선인들의 하와이 이민의 기간이 열린다. 이 기간에 1902년 12월 2일부터 1905년 11월까지 총 33척의 선박으로 6,747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한다. 이때에 인천내리감리교회에서 선교를 하던 감리교 목사 존스(George H. Jones)가 사탕수수재배협회에서 1902년 5월 한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려고 파견된 존 대실러와 연결하여 본격적으로 내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탕수수밭 노동이민자를 모집을 돕는다. 존 대실러는 주한 미국공사였던 알렌에게 '지금 하와이로 이민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선의 조건을 설득하도록 권의를 했다. 이 뜻을 받아들인 고종은 이민사업과 신문화 교류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1902년 8월 20일 수민원

1903년 11월 3일에 안수정, 유병길을 대표로 하여 당시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였던 피어슨(George L. Pearson)목사와 연결하여 리버스트리트 집을 얻고 11월 10일 홍승하 전도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첫 예배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로 되었다. 당시 홍승하전도사는 약관의 34세였다. 1869년에 경기도 영흥출생으로 26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감리회 신학회에 공부를 하고 1902년 5월 1일에 수료하고 1903년 8월에 하와이에 이민자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하와이에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의 교회들이 설립되는 기록을 박기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1910년 당시에는 각 섬마다 교회들이 설립되어 한인교회가 35개에 달하였고 한국인 권사가 27명 그리고 지방교회 교인수를 합하면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0

이였다. 하나님께서는 알렌을 통하여 한국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하와이 이민의 결과로 이어지며 인천내리감리교회 가 처음으로 선교에 동원이 되는 형태가 되었다. 홍승하 전도사를 교인들을 위해 파송하게 된 것이다.

북미주 한인교회의 첫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903년 11월 3일에 안수정, 유병길을 대표로 하여 당시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였던 피어슨(George L. Pearson)목사와 연결하여 리버스트리트 집을 얻고 11월 10일 홍승하 전도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첫 예배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로 되었다. 당시 홍승하전도사는 약관의 34세였다. 1869년에 경기도 영흥출생으로 26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감리회 신학회에 공부를 하고 1902년 5월 1일에 수료하고 1903년 8월에 하와이에 이민자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하와이에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의 교회들이 설립되는 기록을 박기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1910년 당시에는 각 섬마다 교회들이 설립되어 한인교회가 35개에 달하였고 한국인 권사가 27명 그리고 지방교회 교인수를 합하면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0

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전국 인구 현황 평균 추계(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미국전체 한인 인구는 170만 정도이고 이를 4,454개의 한인교회와 대비해 보면 한인인구 약 382명당 한인교회 1개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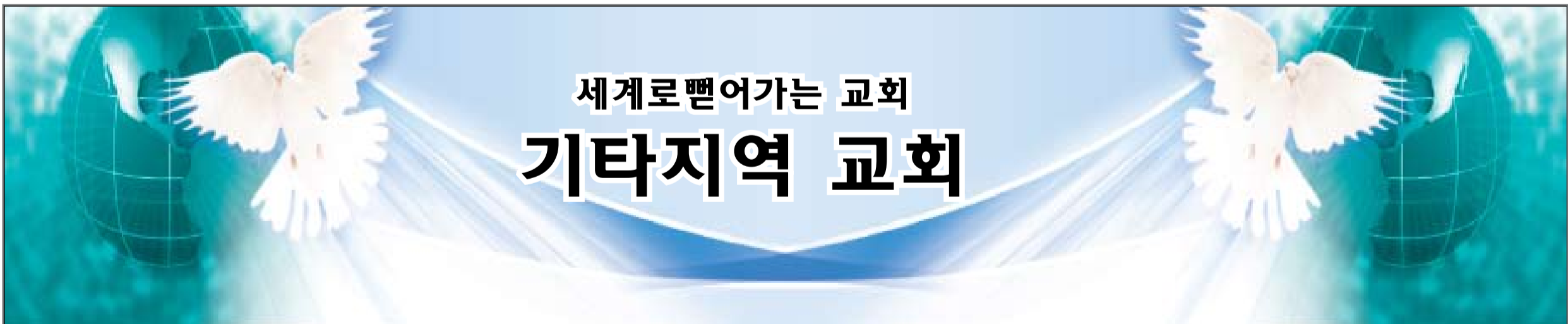
북미주 한인 교회들은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 선교적인 환경에서 볼 때 한인교회들은 세계선교의 가능성이 많은 한인교회들이다. 아직은 한인교회 출신 선교사를 파송한 실제조사를 한 통계가 없다. 이런 현상은 아직 선교동원에 대한 전체를 연결하는 선교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북미주한인교회는 다민족, 다문화권, 한인인민커뮤니티에서 시작되어 출발부터 자연스럽게 선교를 배우고 성장하는 선교적 교회이다.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동원력 증대

한인교회 초기의 성장과정의 관찰결과 선교동원에 있어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한인커뮤니티의 성장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한인사회는 교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동원력 증대

한인교회 초기의 성장과정의 관찰결과 선교동원에 있어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한인커뮤니티의 성장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한인사회는 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대학: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대학: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okchurch.org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bs.com	앵커리지베델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scmc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대를 분별하라” - 차세대

차세대(Next Generation)에 관심은 이 민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큰 이슈가 됩니다.

차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각층에서 빠짐없는 선거공약이 될 만큼 큰 관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민사회가 1세를 거쳐 2세로 그리고 3세가 자라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이민교회도 이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차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차세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염려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문제는 교회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자라 차세대 교육을 18년 한 후 지금은 9번째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총 26년 사역을 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의 교회는 수많은 차세대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왜 한인교회를 떠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Boomer Generation, X Generation, Y Generation에 관한 연구와 그 발표들을 통해 각 세대의 특징을 알아 사회에서나 종교에서 이 세대들을 어떻게 접근(approach)해야 하며,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들의 정체를 알아갔다면, 오늘날 Generation Z에 관한 특징이나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의 차세대(Generation Z)의 정체를 아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Donna Freitas는 2008년 "Sex and the Soul: Juggling Sexuality, Spirituality, Romance and Religion on America's College Campuses" 저서에 Generation Z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가(What is happiness to them?)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Success(성공)이 43%

Generation Z Trends(트렌드)

1)They are screenagers(스크린 세대이다)

Generation Z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Technology)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대로서 스크린(Screen)을 들여다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2) Their world view is post-Christian(포스트모던 세계관이다)

199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복음주의(Evangelical)는 7%에서

6%로 그 수가 낮아졌고, 거듭난 성도(Born Again)의 수도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상승한 부류는 다른 종교(Other Religion)로 7%에서 8%로, 무신론자(Atheist/agnostic)는 9%에서 19%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포스트모던시대에 들어온 후 복음주의나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들의 안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3)"Safe spaces" are normal ("안전한 공간"은 정상으로 인정한다)

그들은 안전한 공간을 추구합니다. 누구를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인식의 리더십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6)Their parents are double-minded(부모는 이심을 갖고 있다)

Generation Z는 과잉보호(Over-protective)하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Under-protective) 부모 사이에서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자녀에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의 해결사가 되는 부모와 전혀 관심 없는 부모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여전히 자녀가 무엇을 하고 무엇

을 하는지 물어보는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면 좋겠다. 내 친구들과 만나셨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과 대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해서 꼭 나쁜 친구는 아니다. 정말 착한 친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내 대화한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 방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에 대해 잠음성이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 나나를 그냥 무조건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 혼자 있고 싶을 때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으면... 사우다가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싸운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조금만 더 자유를 주셨으면...

미국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오래전부터 세대별(generation)을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신앙적과 가정적 교육을 통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대안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트렌드를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결혼관과 성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긴장한 부모와 화해와 미디어를 어떻게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예수에 탄생, 삶, 사역,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가? △빈곤과 사회정의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의 성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신앙을 직장이나 연결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과 과학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으로 뚜렷한 답을 다 얻지 못하는 차이라도 대화를 통한 소통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막힌 관계가 아닌 열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2)를 정했다면 정확하게 자녀에게 전달해 주세요(Clear). 3)일관성(Consistency) 4)인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5)대화의 문을 열어 주세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대화를 끝내주세요.

청소년들이 직접 얘기한 부모님이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면 좋겠다. 내 친구들과 만나셨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과 대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해서 꼭 나쁜 친구는 아니다. 정말 착한 친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내 대화한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 방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에 대해 잠음성이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 나나를 그냥 무조건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 혼자 있고 싶을 때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으면... 사우다가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싸운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조금만 더 자유를 주셨으면...

끝으로 차세대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양성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눈먼 자가 어찌 다른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이 여러 곳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교회마다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선교 또는 단기선교로 여름마다 팀을 보내고 그곳에 많은 금액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차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더 늦기 전에 차세대를 살리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tevehwang@crystalchurch.org

이 시대 선교 대상 '차세대' 이해하기



황영송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가정서도 신앙교육...시대흐름 이해 해석할 대책 방법 대화로 풀며 차세대 사역자 양성과 훈련 절실...끊임없는 투자, 기도, 헌신 필요

습니다. 남의 감정이나 비위를 거슬리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들도 그런 말이나 행동에서 자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안전한 공간을 위해 남의 일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4)Real safety is a myth(진정한 안전은 신화라 생각한다)

부모세대를 보면서 자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직장 또는 안정적인 연봉에 대해 생각이 다릅니다. Hunger Game과 Divergent이라는 책과 영화를 보고 자란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전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Generation Z는 약과 싸워 이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5)They are diverse(다양성 인정)

Generation Z는 그 어느 세대보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최근 5-6년 사이에 소개된 영화를 살펴보면 영웅(Heroes)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여자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만든 Animation(만화영화) 가운데 Moana(모아나), Frozen(겨울왕국)을 보아도 알 수 있고, Wonder Woman(원더우먼), Star Wars: The Last Jedi(별들의 전쟁: 마지막 제다이)를 보아도 다 여성의 리더십의 헌신과 희생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다 보니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힘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Julie Lythcott-Haims, 테네시(Tennessee) 대학교수가 쓴 "How to Raise an Adult"을 보면 2011년 연구에 따르면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이유도 바로 과잉보호와 그렇지 못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불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세대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제용어 가운데 '레드오션'(Red Ocean)과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많아 포화상태가 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바다 속에 상어나 범고래 등 포식자들이 득실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핏빛이 된 바다를 빗대어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레드오션의 반대인 '블루오션'은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푸른 바다'를 뜻하며, 이를 풀이하자면 '새로운 탄생한 경쟁자가 별로 없는 혹은 무경쟁 시장'을 의미합니다. 처음 블루오션을 개척한 업체는 그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분야에서 경쟁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블루오션 자체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 가운데 Generation Z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①과학기술(57%), ②세계관(4%), ③경제성(33%), ④안정감(43%), ⑤다양성(39%), ⑥부모(절반이상 부모로부터)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들은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차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가정, 또는 가족 공동체에서 그들이 받는 영향력이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차세대 사역(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교육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적합성(relevancy)으로 삼각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시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포스트모던을 살고 있는 차세대들에게 공동체(Communal)의 중요성을 그 어떤 세대에 비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든 신앙적 교육을 맡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CA) featuring various churches such as 감사한인교회, 남성순복음교회, 남성영락교회, 남성제일교회, 남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인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오웬선교회, 엘버린침례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인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기.

“시대를 분별하라” - 교육

요새 이민사회를 보면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고민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민 감소를 말한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히려 역 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역 이민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가서 몇 달을 지내고 미국에 와서도 몇 달을 지내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2세대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교회를 떠나고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정한대로 가서 살게 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한인교회를 찾지 않고 미국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됨으로 한인교회는 점점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그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젊은이를 찾아 볼 수 없는 교회가 많게 되었고 유년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많아졌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교회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 무엇을 해야 교회를 젊고 생동감 있는 교회로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어떤 분은 형편이 그러니 세월이 흐르는 대로 가라 되니 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민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민이 줄어들어서 한국인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인이라고 할 때의 그 ‘한인’은 이곳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대도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인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2세, 3세대는 요즘의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교회에서 2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2명 이상을 주로 낳는 것을 본다. 물론 3, 4명을 낳는 가정도 몇몇 있다. 그러므로 한인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젊은 층들이 거의 다 교회를 빠져 나가 미국인 교회를 출석하고 그러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교회는 이민이 준다고 해서 한인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당연히 2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획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그들을 2, 3세들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무장을 시켜야 됨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아주 어린 유아들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을 교육을 시

켜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도 하지”라는 말을 하기 쉽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을 전도하는 전략으로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우리교회는 장년이 없어 아이들로부터 시작한 교회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개척멤버가 한 가정 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전도하라고 하셨다. 그

뒤에 가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한국과의 무역교류가 높아지면서 한글을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전도전략으로 토요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토요학교는 한 때는 아이들이 500명까지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성장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토요학교에서는 언제나 찬양을 배우고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자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은 자

해마다 늘어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건물을 확장 건축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는 그들이 복음화 된다는 것과, 그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한어를 하므로 장년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신앙도 역시 1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한 공

으며 협력할 것을 계획해 놓고 있다.

분명 이 시대는 이민교회에 있어서 위기의 때이다. 그러나 교육에 눈을 뜨다면 기회의 때라고 말할 수 있다. 2, 3세는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인인 것은 피가 한인이고 모습이 한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태어난 2, 3세를 보아도 어디에서 왔냐고 묻는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심어 주지 않으면 어느 날 그들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세대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뿌리 있는 한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확실히 심어준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인들과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 많은 2세, 3세 한인 정치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한인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차피 그들은 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2, 3세들을 예수님을 믿는 한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씨를 심는 것과 같이 앞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농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봄에 씨를 심지 않는다면 가을에는 거둬들이지 못한다. 교회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들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교회는 노령화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면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는 막대한 예산을 선교 자금같이 써야 한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선교기관으로 본다.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통하여 선교할 수 없다면 해외 선교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은 누군가 선교를 와야 하는 선교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국내선교에서 해외선교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 있는 어린 자들을 선교할 수 있어야 계속된 해외선교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에서의 교육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장년들을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너무나도 필요하다. 교육받지 않은 신자와 교육 받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나는 27년을 장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제자훈련을 하며 힘써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과정을 지면상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역시 교회는 교육을 해야 장년이나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없어도 씨를 뿌리듯 교육을 계획하고 힘쓰는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stevehwang@crystalchurch.org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2, 3세 리더 키우라



이종식 목사
뉴욕베이스айд장로교회
리폼드 D. Min 수료

차세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선교 자금처럼 사용
아이들 없어도 씨 뿌리듯 교육을 계획하고 힘써야

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기도했더니 한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한글을 그리고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이 들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이니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가르쳐 주어야 하니 토요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반드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정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토요학교 시간은 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었다.

뉴욕을 보면 일하는 부모들이 토요일 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 이유는 아침엔 학원을 보내고 과외활동을 하는데 오후시간엔 할 것이 없어서 방치를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놀게 되고, 그들이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가 집으로 와야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정을 알고서는 오후 2시에 토요학교를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토요학교에 보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맡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한글도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점차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신들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도를 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교회는 27년이 지나면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 우리교회는 지금도 토요학교를 짜임새 있게 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토요학교를 하므로 그 숫자는 옛날만 못하나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전도되고 있다.

지금 우리교회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토요학교만이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매주 4일 무료 유아원이 진행되고 있고, 주 5일 여는 칠드런 미션센터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장년 예배에 맞추어서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어와나가 열린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방과후 학교가 주 5일 열릴 예정이다.

물론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울 한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를 위한 기관을 통하여 아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교회에는 항상 아이들로 넘쳐나고 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시대를 거슬러

동체로서 협력하며 자라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어린이로 있지는 않는다. 27년 토요학교를 하니 그 곳을 통과한 아이들이 뉴욕에만 수만 명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우리교회는 그런 자들이 많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장하여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하는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을 역시 토요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교회의 각 전도기관에서 눈부시게 봉사하며 다른 2, 3세 아이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점차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들을 위하여 교회는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갖게 되는 비전은 그들 가운데 목회자가 일어나 1세와 2세들을 함께 엮어 목회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모든 교육부서나 EM에서 끊임없이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콜링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그들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잡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시대를 분별하라” - 기독교윤리

몇 년 전에 마네가 대학에 입학해서 기록에 들어갔다. 여학생 세 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성적체성에 혼돈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런 성적체성 혼돈을 전문 용어로 fluid sexuality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부를 때에, he도 아니고 she도 아닌 they로 부르려는 지침을 주었다고 한다. 한 사람 속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 참으로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줄 왕이 없었다는 것이다. 곧 선악의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그러한 각 개인의 선택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표준 가치가 없는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날 표준 가치 체계가 무너진 상황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으로 비유된다.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한 가지 말을 쓰던 세상이 없어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Alasdair MacIntyre의 책 “After Virtue”는 catastrophe 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St. Benedict 라는 단어로 끝맺는다. 곧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 상황을 재앙으로 정의하고, 아직 기독교의 순수한 언어를 보존하고 있는 수도원으로 피신하자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이다.

그에 반해서 Jeffrey Stout는 그의 책 “Ethics after Babel”에서, MacIntyre의 견해를 비판하고, 다원주의 사회를 낙관적으로 본다. 곧 인간에게는 다양한 언어를 통역할 능력이 있고,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conceptual resources)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자 자기 자리(niche)가 있다는 것이다.

MacIntyre는 다원주의 시대를 감정주의(emotivism)의 시대로 정의한다. 곧 토론(arguments)은 없고, 자기 주장(assertions)과 반대 주장(counter-assertions)만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판단은 개인의 선호와 느낌에 따라 내려지며, 객관적 기준(impersonal criteria)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

람과 토론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common ground)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답론은 자신이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impose) 하려는 시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MacIntyre는 다원주의란 도덕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현재의 재난적 상황을 감추고, 도덕적 의견 충돌을 품위 있게 표현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Stout는 MacIntyre의 견해가 과장이라고 비판한다. 모든 종교에 황금율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날의 다양한 도덕적인 입장에 대해 대화를 가능케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MacIntyre가 일관된 도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중세 기

과 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MacIntyre는 중세 시대에는 인류가 다양한 문화를 초월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MacIntyre는 그것을 유럽 중세 시대에 통용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철학에 근거한 틀(Aristotelian teleological framework of the European Middle Ages)로 정의한다. 근대에 이르러 그러한 통합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은 이제 감정적 인간의 선택에 근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Stout는 MacIntyre가 말하는 다양한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체계는 인식론적 불가(epistemological impossibility)이라고 주장한다. 곧 인간은

다.

그러면 다원주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세상과 담을 쌓는 종파주의는 분명 칼빈의 개혁주의와 다르다. 트로엘취(Ernst Troeltsch)는 그의 유명한 모형/유형론(typology)에서 교회 유형(church-type)과 종파 유형(sect-type)을 구별하였다. 교회 유형은 세상의 모든 삶을 다루려는 보편적인(universal) 태도를 가리키고, 종파 유형은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tic) 태도를 보인다.

나이버(H. R. Nieburh)는 트로엘취의 모형론을 발전시켜서 1951년에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에서 다섯 가지 유형론으로 발전시켰다. 첫 번째는 Christ of

된 공동체에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산다. 그 울타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상 풍조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경계를 한다. MacIntyre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였던 중세 천주교와 같은 Christ above the Culture의 태도가 있다. 혹은 루터의 두 왕국 교리에 따라서, 교인으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분리시켰던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의 태도도 있다. 그러면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Christ transforming the Culture,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 문화와 사회를 개종(convert) 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종적(conversionist) 견해는 어거스틴과 존 칼빈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제시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에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주님께 순종하여 문화적 사역(cultural work)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종론자들은 창조된 선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죄로 타락한 것을 변혁(transform)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Christ Transforming Culture” 유형은 문화의 타락을 인식하면서도, 문화 갱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인간과 문화를 개종시키면, 자기중심(self-centeredness)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Christ-centeredness)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속하시므로, 그리스도전도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로 변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Stout의 말처럼 우리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은 아니지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윤리의 표준은 MacIntyre가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공유하는 sect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



주원열 목사 로드아일랜드중앙한인교회 보스턴대신대원 Th.D

다원주의: 모든 윤리적 판단을 개인기호 따라 결정... 객관적 기준 부재 개종적 유형은 문화 타락 인식하면서도 문화 갱신 가능성에도 낙관적

독교에도 도덕적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Stout는 다양한 도덕적 언어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도덕적 만국 공용어(moral Esperanto)라고 본다. 곧 바벨탑은 도덕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갖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도덕적 언어를 해석하며, 다른 말을 쓰는 외국인

자신의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자의 시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MacIntyre는 중세의 기독교 문명과 같은 보편적인 체계를 건설할 희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polis)나 중세의 수도원처럼 아직 한 가지 말을 쓰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Stout는 그러한 결론을 종파주의적(sectarian)이라고 비판한

the Culture, 곧 세상과 될 수 있는 대로 구별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현대의 세속화 신학의 태도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교회는 세상과 호흡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Stout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반대로 Christ against the Culture,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sect, 분파들이 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

어지고 찾아가는 선교동원시대를 열어야 한다.

북미주 한인교회들은 선교잠재력이 매우 큰 교회들이고 세계선교의 자원이다. 또한 본국의 한국교회들과 동반자의 관계로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선교지의 인력을 동원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동안 북미주에 오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선교 인력동원보다는 선교재정동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인력동원에 중점으로 두고 선교인력을 동원하면 북미주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8면에서 계속)

이 연금으로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본인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

선교지에 가도 미국정부에서 은퇴연금은 나오기에 충분히 선교비 모금을 하지 않아도 본인생활을 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의 본인 생활비는 은퇴연금으로 충분히 현지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역비는 소중한 교회공동체가 작은 액수라도 공동으로 모아서 보내면 선교사역비도 충당이 될 수 있다.

황금기선교사들은 1년에 선교지에 3개월씩 3번을 나가고 1개월씩 3번을 미국에 들어와 휴식하며 건강체크와 가족들과 만나고 또한 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나

눌 수 있다. 65세 은퇴 후 최소한 3년간 황금기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한다. 환훈기가 아닌 황금기선교사동원이다.

셋째, 선교인력동원을 위한 선교박람회 활성화를 제안한다.

현재 북미주에는 선교동원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운동이 없다. 따라서 선교 인력동원만을 중점으로 하는 선교동원 운동으로 선교박람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인력동원에 초점을 맞춘 선교대회를 하도록 한다.

이 선교박람회는 선교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대회로 선교사들이 미주 전 지역으로 흠어지고 찾아가는 선교대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일반성도들이 자신

들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전문성으로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선교지에 연결되어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현재 SON Ministries/GMAN은 매년 선교박람회를 개최하여 소중한 교회와 황금기선교사동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올해 11월 5-7일에는 31개국의 124명의 선교사들과 오렌지카운티 중심의 50개 한인교회들이 함께 선교박람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

나가는 말

현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초기 이민 개척시대의 교회에서 중반기의 이민사회 정착과 안정기 그

리고 약 4,500교회가 넘는 시대를 맞이하여 선교동원의 방향이 다시 제시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1988년도에 시카고 웨스턴대학에서 개최된 KWMC 운동이 지난 32년간 지속되어왔고 또한 2001년도에 시작된 KIMNET 운동도 있지만 이제는 전체 한인교회들 중 76%가 되는 소형, 중형 교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여 선교참여와 동원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고품격 시대를 맞이하여 북미주 한인교회들안에 있는 건강한 은퇴한 전문인 성도들이 평신도전문인으로서 황금기선교사의 신분으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운동이 북미주 전 지역에 확산이 되도록 선교박람회운동을 통해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building, text in Korean and English, and a list of degree programs including ESL, Bachelor, Master, and Doctoral options.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2019년 신년하례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 2019년 신년하례회가 1월 8일(화요일)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82회)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드림어 문예공모전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대책위원회가 미주 한인 고교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드림어 문예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 수필, 페인팅, 사진, 단편영화 등 5개 부문이며 응모작품은 지원서, 작품설명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미발표작 순수 창작물물 마감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dreamersnowhere@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지원양식은 www.facebook.com/DreamersNowHere에서 받을 수 있다. 당선작 상금은 대상 2천달러, 가작 1천달러, 특별상 3편 각 500달러, 장려상 10편 각 100달러. 당선작 발표는 2월 8일, 수여식은 2월 16일 오후 5시 메트로폴리탄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dreamersnowhere@gmail.com

2019년 웨슬리 부흥전도단 신년 금식성회
 2019년 웨슬리 부흥전도단 신년 금식성회가 2019년 1월 1일(화) 오후 5시부터 2일(수) 오후 12시까지 뉴저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문의: (516)681-1713 강원근 목사

미주대한민국어머니기도회 신년특별기도성회
 미주대한민국어머니기도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4차 어머니기도회 및 신년특별기도성회가 2019년 1월 3일(목) 오전 11시 뉴저지 성은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
 ▲문의: (201)835-2427 회장 박에스터 목사



“제 4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성료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고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이 주관한 “제 4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패밀리터치에서 개최됐다. 주 강사는 빌립보교회(MD) 송영선 목사. “부부가 서로 머슴되어 교회를 섬기자”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목회자 부부 9가족과 개인 7명 포함해 총 25명이 등록했다. 사진은 목회자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문화적 폭풍속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선포

(2면에서 계속)
 6. 지구촌 경제, 군비 경쟁 개편 가속화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한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게 되면 지구촌 경제 주도권을 개편하게 된다. 하버드대학 한 연구가에 따르면 2위 국가가 1위 국가를 따라잡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75%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그러한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실제 전쟁이 12번 발생했다(The troubling U.S.-China face-off).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미국은 경제 규모에서 3위로 몰려나게 된다. 중국을 이어 인도가 미국을 대신하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바짝 뒤쫓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이들 국가들은 일단 사람 숫자 즉 인구 면에서 서방을 압도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근본적 힌두주의 그리고 원리주의적 이슬람을 엄격하게 믿는 사람들이 국가 정상에 있다는 점에서 낙관보다는 비판적 전망이 압도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 경제 마찰이 실제로 증시, 무역, 지구촌 가치들, 국제적 동맹 그리고 세계 평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촌 경제, 군비 경쟁 개편 과정은 이제는 지구촌의 흐름이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일기 시작한 “탈서구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모든 신념 체제는 동등하며 갈등 없이 서로 공생할 수

있다고 믿는 젊은 미국인들에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흥 경제대국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고 우월하다고(이미 여러 서방국가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실수들)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되고, 교회들은 불타게 되며 연설이나 종교의 자유 같은 미국적 가치들은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세계경제 1등국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급속도로 밀려올 변화의 쓰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천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결국 그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왕국 시민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왕 중의 왕이고 구주 중의 구주이신가를 선포해야 한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처럼(“이새갈 자손 중에서 시새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리더들을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밀려오는 문화적 폭풍들을 막아낼 은혜와 진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화의 충돌이라는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전쟁이 2019년이 기다린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2019년 3회 연합집회 등 행사일정 발표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원회 및 기자간담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지난 21일 첫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2019년 신년감사예배 및 46회기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또 오찬 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들과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회장 정순원 목사는 “지난 11월말부터 2주간 동안 한국에 다녀왔다”며 “2019년에 교협은 성령화 부흥집회와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차세대를 위한 집회 등 3개의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46회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뉴욕교협의 연간 행사 일정은 크게 △2019년 1월 14일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대동연회장)을 시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작으로 △4월 21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5월 3-5일 성령화 부흥집회(퀸즈장로교회) △7월 5-7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프라이스교회) △9월 6-8일 차세대를 위한 집회(프라이스교회)가 열린다.

이들 행사를 위한 △준비기도회와 △세미나(법죄와 예방, 묵회와 영성) △체육대회 등이 있으며 회기내 4회의 임실행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날 총무 이은수 목사가 업무보고를, 교협주소록 출판보고는 양민석 부회장(출판위원장)이 신년하례만찬 준비현황 보고는 마바울 준비

위원장이 했다. 양민석 목사는 2019년 뉴욕교협 주소록의 주소리스팅 작업과 광고(교회 33, 기관단체 54)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광고는 26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기타 안건 시간에는 지난 회기에 넘어온 교협건물 수리비 3천 달러를 교협건물 구좌에서 임시 차용하기로 결의했다. 정순원 회장은 현재 교협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신년하례만찬을 통해 수입을 마련해 곧 갚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차철회 목사,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설교 김영식 목사, 합심(통성)기도 최현준 목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오명의 목사(뉴욕교계를 위해),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식 목사는 “교협은 법규와 함께”(히9: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협이 하나님의 법규와 함께 한다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교포사회 정신적 지주가 되고 한인사회를 변화시켜 결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며 “법규를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적 광야 40년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삶,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성 식당에서 임원진과의 기자간담회는 별 다른 이슈 없이 식사하며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송년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재관 신임단장, 회원배가운동 각오

뉴욕장로성가단 송년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

뉴욕장로성가단이 지난 12월 18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송년 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9대 단장으로 김재관 장로가 취임했다.

신임 단장 김재관 장로는 “장로성가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며 “구체적으로 100명 목표로 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뉴욕일원 5백여 교회에는 많은 장로들이 있는데,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장로성가단이 돼서 국내외적으로 찬양 복음사역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지난 23년 동안 8명의 단장들이 헌신했으며 현재 등록단원은 67명이다.

1부 예배는 장세환 장로(부단장)

인도로 대표기도 손성대 장로(증경단장), 성경봉독 김홍근 장로(서기), 특송 박기철 장로, 설교 및 축도 김바나바 목사(단목, 퀸즈한인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송윤섭 장로(총무) 사회로 박해용 장로(증경단장) 기도 후, 축송 뉴욕장로성가단 아이노스 중장단, 이임사 홍대순 장로(직전 단장), 취임사 김재관 장로(신임 단장), 임원 소개, 직전 단장에게 공로패와 연승 개근 2인에게 개근상 수여, 축사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 박태규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격려사 박용기 장로(이사장), 광고 송윤섭 장로(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정권식 장로(부단장)의 만찬기도로 만찬이 진행됐으며, 3부는 지휘자 이다니엘 장로의 사회로 찬양과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독교서원 창간 19주년 행사를 마치고 순서를 맡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고스교회 통해 채플사역

창간 19주년 기독교서원, 미션킹덤마이저 개원

19주년을 맞은 기독교서원(발행인 임성식 목사)이 지난 22일 오후 5시 로고스교회 채플 및 미션 킹덤 마이저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임성식 목사는 창간 19주년을 맞은 기독교서원이 킹덤마이저 설립과 채플 사역을 통해 뉴욕교계와 목회자들을 섬긴다고 밝혔다. 플러싱 노던 169가에 위치한 사옥에서는 채플실(주중예배 및 집회)과 24시간 기도실을 오픈하고 컨퍼런스룸, 크리스천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게 된다.

임성식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내 놓으라 하시던” 제목의 감사와 고백, 결단인 담긴 자작시를 발표했다.

임 목사는 미션킹덤마이저를 통해 로고스교회 목회도 시작했다. 2002년 뉴욕에서 꿈이있는교회를 개척한 후 2007년 교회이름을 로고스교회로 바꾸었다. 그동안 목회

를 중단했다가 이번엔 다시 시작하게 됐다.

예배는 임성식 목사 시회로, 기도 박준수 목사(마하나임선교교회), 성경봉독 오강석 장로(이사), 특송 월드밀알선교중앙단, 설교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봉헌기도 오종민 목사(뉴저지우리교회), 축도 김정국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축하순서는 축사 허연행 목사(프라이스교회)와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 감사패 증정 이해숙 권사(이사), 격려사 한문수 목사(뉴욕원로성직자회 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이종선 목사(주님의식탁선교회)의 만찬기도 후 친교가 진행됐다.

▲문의: (347)453-1603 그레이스리



뉴욕목사회 제 47회기가 지난 20일 임원진 시무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했다.

2019년 행사 일정 발표

뉴욕목사회 제 47회기 임원진 시무예배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제 47회기가 지난 12월 20일 오전 임원진 시무예배를 드렸다. 뉴욕목사회는 부활절 연합찬양제와 선교 여행, 음악회를 위해 각각 3회의 준비기도회를 하며 이 외에 3차에 걸친 임실행위원회와 체육대회, 성경세미나 등을 계획했다.

새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 시무예배에서 발표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년기도회: 2월 18일(콩아일랜드기도원) △임실행위원회: 1차 3월 11일(퀸즈한인교회), 2차 7월 8일(베이사이드장로교회), 3차 10월 14일(뉴욕장로교회) △부활절 연합찬양제(4월 21일, 퀸즈한인교회)와 선교여행(6월 6-10일): 1차 준비기도회 2월 18일(하크네시아교회), 2차 준비기도회 3월 11일(모자이크교회), 3차 준비기도회 4월 8일(뉴욕감리교회) △음악회(9월 2일): 1차 준비기도회 6월 17일

(친구교회), 2차 준비기도회(갯세마네교회), 3차 준비기도회(대한교회).

목사회는 부활절연합찬양제와 선교와 전도지 제작을 위해, 선교 여행은 목사회원 사모위로 목적으로, 음악회는 병환중의 목회자를 돕기 위해 각각 열린다고 밝혔다.

또 스페인어는 10월 7일 알리폰드 파크에서, △성경세미나는 11월 1일 열린다. 이외에 제 13회 미동부 4개주 목사회체육대회는 5월 27일 열린다.

한편 신년기도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는 1월 7일(월) 열린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이준성 목사, 설교 박태규 목사(“나를 따라 오려거든”, 마16:24), 합심기도 황태연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뉴저지밀알 장애인가족 콘서트로 2018년 마감

뉴저지초대교회 브니엘선교회와 성탄음악회도 열어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회장 강태욱)가 뉴저지초대교회 기관사역부(부장: 최중국), 브니엘선교회(김명희 전도사)와 함께 12월 18일 오후 12시 30분, 할렐루에 위치한 소울세이빙 스테이션을 찾아가 할렐루이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무료식사와 선물을 주고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는 재즈피아니스트 스틸라 황과 재즈 보컬 제이드 최, 베이스 기타에 로렌조 샌디, 퍼커

션에 아키오 호리가 참여해 마음이 따뜻한 캐롤을 재즈 풍으로 해석한 곡들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22일에는 뉴저지밀알을 찾아 장애인 및 그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는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총 52회의 아웃리치 이벤트를 종료했다.

▲후원문의: (212)239-4438, happiness@EnoB.org



남가주교협 성탄맞이 사랑의 나눔 축제

장애인, 홈리스, 미자립교회에 사랑의 쌀/담요 나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나눔 축제를 지난 한 주간동안 이어갔다. 지난 17일 오전 장애인 시설과

홈리스 선교사역 등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22일에는 KCBC 기독교방송과 함께 오전 7시부터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들에게 사랑의 담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17일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살롬장애인선교회, 실로암선교회, 나눔선교회, 율리안선교회, 파더김스미션, 시온복음선교회와 미자립교회들에 사랑의 쌀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로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재생산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돼 쓸쓸한 마음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10시에는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에서 쌀과 담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무궁화양로센터를 방문해 경건회와 발표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한기형 회장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가주교협 사랑의 나눔 축제 실시했다. 사진은 홈리스단체와 장애인선교단체, 그리고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마련된 사랑의쌀 나눔행사장면



벤츄라카운티 교역자협의회가 주최한 2018 벤츄라카운티 성탄연합예배가 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살롬장애인선교회 2018년 성탄축하파티에서 열린 장애인가족 장학금 수여식은 총 1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18명에게 장학금 총14,400 달러 전달

살롬장애인선교회 2018년 성탄축하파티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2018년 성탄축하파티 및 제 19회 장애인가족 장학금 수여식이 20일 오후 6시 아로마센터 벅킷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애인가족 장학금 수여식은 총 1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레이첼배 자매가 특별 찬양했다. 장애인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격려가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 재학생, 총 18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총14,400달러)을 전달하였다. 특별히 청각장애인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다음은 장학금 수혜자명단이다.

△대학(원)생: 이우영, 데이빗안, 박승연, 다니엘장, 조수아신, 제인김, 줄리아조, 홍지원 △고등학생: 선 김, 폴 신, 신윤서, 레이첼배, 그레이스원, 함강진 △기타: 함다성, 함다나, 태현정 전도사, 손지영 목사

사.

한편 GGM찬양팀 찬양인도와 박모세 목사 인도로 시작된 성탄축하예배는 이준형 목사가 기도했으며, 오위영 목사 특별 찬양했다. 류제덕 목사가 '임마누엘 성탄, 하나님의 참된 위로'(눅1:35-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제덕 목사는 "성령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감싸주실 것이라 믿는 마리아가 경험했다"며 "성탄절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경험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성탄절 가장 큰 축복은 아기예수를 영접하고 함께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뤄지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SDM찬양팀이 특송했으며 유영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상기 목사가 출판감사예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상기 목사 '미국이민...' 과 '야곱의 고백' 출판기념회

이상기 목사(평강교회 담임)의 신간 '미국이민 45년 이야기'와 '야곱의 고백' 출판기념회가 17일 오후 6시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상기 목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따름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미국이민 45년 이야기'는 그동안 크리스찬투데이에 게재한 칼럼을 묶어냈으며 '야곱의 고백'은 이상기 목사의 자서전이다. 서인실 사장(크리스찬투데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기도 박재용 목사(유엔아미장로교회 담임), 특송 박경숙 사모에 이어 서종천 목사가 필자를 소개했다.

서 목사는 "40여년 이민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이상기 목사님은 누구보다 영이 맑은 목회자이다. 진리에 충성하는 중이며, 양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종이 오늘 정말 필요한 책, 있어야 할 책을 발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크리스찬투데이 편집고문 박기영 목사는 "책 전체를 통해 절절히 흐르는 목사의 애환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성도를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희생과 헌신 또한 감동해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니셜 처리와 성경구절 인용이 적었다는 점이다"라고 서평을 전했다.

연이은 서평에서 이성자 전도사는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오늘 출간은 그간 수고의 소중한 열매다. 이상기 목사님의 글은 기교나 미사여구 등의 특별한 모양도 특별한 색도 없다. 하지만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셨던 동치미와 같이 가슴을 시원케하고 찜찜찌릿하게 영혼을 깨우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동행 대표 박에스터 권사님의 서평후 오렌지 말씀사 대표 전인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검표가 수상했다.

유니스송 대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이 행사 열어 커뮤니티 희망과 빛을 주는 자들을 세워 격려하고 싶다"며 "사회가 어렵지만 리더십 행사를 통해 한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심어주고 차세대들에게 도전장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회원교회 찬양대 각 주제로 나눠 찬양

벤츄라카운티교협 성탄연합예배

벤츄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회장 이정구 목사)가 주최한 2018 벤츄라카운티 성탄연합예배가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영 목사)에서 지난 16일 5시 성황리에 열렸다.

이상영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반체근 목사(씨매벨리 한인교회)가 기도했으며 조인 목사(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요일4: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벤츄라카운티 교협 산하 교회들의 찬양대가 각 주제로 나눠 찬양했다.

먼저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 찬

양대가 '기쁨의 찬양'이란 주제로, 벤츄라카운티교회가 '능력의 찬양', 씨매벨리한인교회가 '평화의 찬양', 카마리오열방교회가 '사랑의 찬양', 새생명교회가 '은혜의 찬양', 주님의교회가 '평화의 찬양', 그리고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가 '축복의 찬양'을 불렀다.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가 현금의 찬양을 불렀으며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가 봉헌 및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남재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벤츄라카운티 교역자협의회)



LA여성선교협창단 송년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LA여성선교협창단 송년 모임

본지에 선교비 후원하며 격려

LA여성선교협창단(단장 최정직, 지휘 최왕성)은 12일 오전 11시 새일교회(담임 정병노 목사)에서 제 17회 송년모임을 갖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모임은 예배와 만찬, 송년파티로 진행했다.

최정직 단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안춘실 권사, 성경봉독 미셀리, 설교 Dr. Norman Bullock으로 진행했다.

이날 놀날 목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눅2:1-14)의 제목으로 "크리스마스는 서로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전하는 절기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기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이 모든 기쁨을 회복하자"고 강조

했다. 이어 올해에도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성국 목사) 문서사역을 위해 500달러를 전달하며 문서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선교비를 전달받은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는 "매년 잊지 않고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 귀한 후원금과 신문사를 위한 합창단 회원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새해에도 귀한 사역 잘 감당토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본 합창단은 오는 2019년 1월 9일 총회와 함께 새해를 열어가게 된다. 자세한 것은 안춘실 총무(213-448-6201)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민김 오픈뱅크행장·로펌 에이킨검프 루미너리 수상 한미연합회 제1회 차세대 한인 리더십 행사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송)가 차세대 멘토링과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 1회 차세대 한인 리더십 행사'를 지난 19일 오후 7시 LA 힐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번 리더십 행사는 KAC가 사무

국장 체제에서 대표체제로 전환되면서 향후 '차세대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사다.

유니스송 대표는 "KAC 35주년을 기념하며 이 행사를 시작했고 해마다 열 계획"이라 말했다. 송 대표는

"루미너리 어워즈(LUMINARY AWARDS)의 LUMINARY는 비추는 자라는 의미"라 말하며 "리더십(Leadership), 영향력(Impact), 관대함(Generosity), 희망(Hope), 강인함(Tenacity)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제 1회 한미연합회 루미너리 어워즈는 개인부문에 민 김 오픈뱅크 행장이, 단체부문에 로펌 에이킨

검프가 수상했다. 유니스송 대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이 행사 열어 커뮤니티 희망과 빛을 주는 자들을 세워 격려하고 싶다"며 "사회가 어렵지만 리더십 행사를 통해 한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심어주고 차세대들에게 도전장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소망소사이어티 LA지부 개소식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LA지부 개소식을 1월 10일(목) 오전 11시에 갖는다. 장소는 3030 W.Olympic Blvd, #217, LA. ▲문의: (562)944-4580, (213)908-5045

단국대학교 10기 미주문학아카데미

단국대학교 미주문학아카데미가 10기 강좌를 1월 7일(월)부터 12일(토)까지 일주일간 LA 미주중앙일보 강당과 오렌지카운티 더 소스 몰, 두 군데에서 진행한다. 미주문학아카데미는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박덕규 교수(시인, 소설가)가 주관하며 강좌는 박 교수와 함께 이 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들이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스토리텔러로 알려진 최수용 교수가 함께 한다. 이번 10기의 강의 주제는 '문예창작과 한류문화 콘텐츠의 만남'으로 문학과 영상기법을 배우게 된다. 강좌는 낮 반과 저녁 반에 동일 강좌가 개설되므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수업료는 무료이며 교재는 현장에서 판매한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강좌는 LA 미주중앙일보 본사에서 진행하며 9일(수)에는 특강 형식으로 오렌지카운티 더 소스 몰 사무실에서 열린다. ▲문의: (213)368-9806

월드미션대학교 2019년 봄학기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한다. 일정은 1월 7일(월) 오전 10시, 오렌지카운티 분교, 1월 8일(화) 오후 7시, 분교다. ▲문의: (213)388-1000



남가주 교협과 남가주 목사회 회장 회동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교계연합행사 적극 협력 다짐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 회장 회동

남가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모색했다. 지난 12월 18일 오전 남가주교회협의회 한기형 회장과 남가주한인목사회 김관진 회장이 한 자리에 앉았다. 지난 11월에 각각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두 회장들은 이미 서로의 취임을 축하하며 손을 잡았다. 두 단체장은 두 기관의 신인회 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했으며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2019년 회기 동안 협력하게 됐다. 남가주 교계에는 예컨대 3.1절

기념예배, 부활절연합예배, 6.25상기예배, 8.15광복 감사예배 등 연합행사가 있다. 이런 예배와 행사들에서 두 기관이 협력하며 서로를 후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한편 목사회는 2019년 1월 13일에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면서 힘찬 출발을 할 예정이고, 남가주교회협의회도 신년 하례회를 통해서 회장단 활동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목사회)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가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가졌다. 진유철 목사 사회로 열린 송년음악회는 본교 음악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출연하여 찬양곡과 크리스마스 곡을 연주했다. 색소폰연주자 켈빈박, 보컬리스트 원예정, 본교 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찬양팀, 보컬리스트 박수진, 바이올리스트 박윤재 교수, 첼리스트 박수정 교수 등이 무대에 올라 송년의 밤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는 연주를 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크리스마스 장식품 무료 배포행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12월 20일 오후 2시, 교회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장식품인 오나먼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장식품들은 은퇴 엔지니어인 조세원 씨가 이제는 고인이 된 부인 조자경 씨가 운영하던 할막(Hallmark) 매장을 정리한 후 장식품들(ornaments)을 기증해 이뤄졌다. 조세원 씨는 이미 매점편도로 총 5개의 소망우물을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 기증했으며 이번에도 기증한 장식품의 판매수익으로 더 많은 소망 우물이 퍼져지기를 희망했다.

기증품을 접수한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소망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필요한 단체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해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교회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80상자를 무료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행사를 가졌다.

유분자 이사장의 행사개최 취지 설명 후 참석한 기증자 조세원 씨는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각자의 삶을 통해 커뮤니티가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 행사에는 나눔선교회, 한미가정상담소, 푸른초정의 집, 어린이전도협회, 생명의바람교회, LA사랑의교회, 생명나무선교회, 남가주프림스교회, 새창조교회, 태평양연합감리교회 등 총 60개의 단체 및 교회가 참여해 선착순으로 장식품 상자를 받아갔다. (박준호 기자)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310)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글로벌경제 빨간불, 민주주의 회복세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2019 세계전망 통해 지구촌 경제, 정치, 문화 예측'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작년보다 다소 약해질 것으로 진단한다. 2018년에는 미국의 호황에 따른 세계경제의 착시현상이 이어졌지만, 2019년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도 슬슬 불황의 조짐이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흐름도 점차 둔화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세 금감면의 약발이 떨어지는 동시에 높은 관세와 금리가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차입비용이 상승하고, 부채가 급증하면서 주식시장과 신용시장 역시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한다. 약 10년간 지속됐던 선진국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2019년에도 연준은 긴축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적어도 2019년 중반까지 두 차례 이상의 0.25%포인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이 분야의 기술 규제나 대책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이나 인터넷처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적용 범위를 갖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자들이 AI에 대한 현실적 사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우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시 어떠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와 같은 난제는 물론, AI가 초래할 일자리 변화와 예상 실업률 등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강력한 컴퓨터와 거대한 얼굴 데이터베

일상으로 침투하는 AI...

범죄자 체포, 편리한 일상과 아울러 개인권리, 인권침해 상승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채다. 오늘날 세계는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보다도 더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금리인상과 부채증가는 치명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조합인데다 달러와 강세가 맞물리면서, 개발도상국의 달러표시 부채 상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외교교제인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경기침체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관세 전쟁의 악영향을 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지만, 미국의 관세인상 결정은 그 정책만으로도 자국의 GDP 성장률은 물론 중국과 여러 신흥국들에게 리스크가 큰 만큼 그 파급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예견한다. 다만 트럼프가 선견지명을 갖춘 지도자라면 이상황을 중국과 세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역사적 기회로 삼아

야 하는데, 과연 그가 WTO의 틀 안에서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반면 정체된 경제 흐름 가운데서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가속이 붙을 것이며, 혼란기를 지나온 시리아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며, 다만 유로존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는 금융위기와 씨름하게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담한 한 해였다고 진단하며, 2019년을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세계적 퇴보를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으로 내다보았다. 세계적 사상 최대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는 물론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여러 국가들이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후

퇴함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민주주의는 결합이 없으니 독재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하며, 다원주의에 대한 모든 공격에 저항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국가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좀더 견제해야 하지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맞붙는 세계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경합은 2019년 내내 세계정치의 중심무대가 될 것이며, 불안정하게나마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불씨 앞에 많은 독재자들이 수세에 몰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도는 이제 기술로부터 도망칠 수도, 기술을 이용해 숨을 수도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중 가장 먼저 일상으로 깊이 파고드는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의 습관에 관한 데이터를 잘만 활용·분석한다면, 모든 산업에서 온라인 쇼핑객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판단해 반쯤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이스를 사용해 사람들의 얼굴을 걸어다니는 바코드처럼 읽어내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의 보급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추적당하지 않는 공간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공연이나 경기, 항공권 등을 이용할 때도 종이티켓이 아닌 얼굴스캔만으로도 입장이 가능한 편리성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역시나 개인의 권리나 인권 침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얼굴이미지를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국가나 민간기업에 남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에도 증강현실의 세계가 현실에서 가능하기 어려운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수술이나 자폐아 치료 같은 정신의학과에서 필요한 기술로 도입되는 의료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새로운 유전자 검사기술을 이용해 미래자손의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알린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남자집사의 자격(1)(담전3:8-9)찬102장
사도는 감독자적조항에 연결해 남자집사의 자격조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중해야 합니다(8). 정직하며 품위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6:3에 나온 일곱집사 자격 속에 칭찬을 받는 조항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는 제사장처럼 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둘째, 일구어안지 말아야 합니다(9). 말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화 남자집사의 자격(2)(담전3:9-10)찬463장
넷째,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9). 정당한 유익을 구하고 불의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돈을 만지는 책임을 가진 집사는 교회를 이용한 자기 탐욕 충족을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의 욕심 때문에 거룩을 더럽힘으로써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10). 그러므로 그는 선한 양심을 늘 따라서 믿음의 진실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반과 빌립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진실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10). 집사 역시 감독처럼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어디서나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홍사역은 순전하고 정직할 때 힘이 있습니다.

수 여자집사의 자격(담전3:11-12)찬347장
사도는 남자와 여자 누구든지 교회 섬김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집사의 자격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첫째, 정숙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품위를 지킴으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웅변보다 조용함은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겸손한 순종은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원천이 됩니다. 둘째, 모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고

목 집사의 상급(담전3:12-13)찬190장
사도는 남녀집사가 가질 자격조항을 몇 가지 더 말합니다. 첫째, 건강한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감독자적이나 집사자격은 대등소위입니다. 감독이 가정의 본을 가진 것처럼 집사 역시 그런 가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섬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집사 역시 아름다운 명예를 사모해 거기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예로운 이 직분을 잘함으로 위로는 존귀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큰 단력을 얻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할 때 얻어지는 큰 믿음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공격이 많은 세상은 오직 이 믿음으로 이깁니다. 목사가 가진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왕적 사명은 의와 진실로 빛나지만 집사의 제사장적 섬김은 금홍로서 빛나며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런 자격자가 됩니다.

금 교회란 무엇인가?(담전3:14-15)찬214장
사도는 다시 교회를 3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는 곳으로 그의 성품이 가득 찬 곳이며 그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둘째,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그 힘이 진리에 있다고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토 경건의 비밀(담전3:16)찬173장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리키는 데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의 찬양은 교회가 경건의 원천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감람으로 성취한 열매가 경건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거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구속을 성취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인 은혜와 평강은 경건의 모습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죄사함으로 얻는 경건이 연약성에 주어지게 하려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경건의 꽃이 피어나는 토양이 됐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교회가 경건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643-6754~5 군포시 금정동 870-5</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16-3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22-43 (114-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p>	<p>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172-29(잠실동) www.shinch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45 www.shinchon.org</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위례시로1길 50-1 www.anamj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동 415 www.yangokg.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광역시 부림구 신곡4동 294-1(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INVITATION

은대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예배

Greeting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cordially invite you to join us at the Special Service
for the Presidential Inaugural Ceremony of The Korean Christian Pres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 신문사에서
미주 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위로, 격려, 축하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 장영춘 목사 취임 김성국 목사

January 26, 2019, Saturday, at 6:00pm

Oxford Palace Hotel

745 South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9.8000

예약: 323.665.0009



*예배후 만찬과 자그마한 선물이 준비 됩니다.